

**中東** 산유국들은 이란·이라크戰이 장기화됨에 따라 유조선공격위협과 호르무즈해협의 존도를 줄이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수송능력의 확대계획을 추진중이다.

## 中東산유국의 파이프라인 건설계획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3백15만B/D의 파이프라인 외에 새로 4백15만B/D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중이다.

또 이란과 이라크도 각각 2백만B/D, 2백75만B/D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중인데, 양국은 페르시아만지역의 공습 및 유조선공격등으로 인해 해상수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와같은 中東산유국들의 파이프라인건설계획이 완공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의 파이프라인 수송능력은 현재 6백10만B/D에서 8백90만B/D로 대폭 증대될 것이다.

최근 페르시아만 연안국의 원유수출량은 약 8백70만B/D이며, 이 가운데 이라크와 이란의 원유수출량은 각각 1백60만B/D, 1백50만B/D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란은 현재 총투자 1천5백만달러 규모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계획중이며, 이를 위해 이탈리아의 Saipem社와 상담을 진행중이다. 이 파이프라인이 완공될 경우 이란의 원유수송능력은 1백50만B/D 확대되고, 원유수출에 따른 이라크의 공습위협도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파이프라인은 Busheh항을 통과할 계획인데, 부세르港은 해상터미널시설이 가능하며, 공군기지가 있어서 유조선 보호에 유리하다.

이번 파이프라인건설계획은 지난 85년에 수립되었다가 86년에 취소되었던 Moharram 계획을 보완한 것으로 모하람계획은 Gurreh pumping Station에서 하르그섬 수출터미널까지 구경 42인치의 파이프라인 2개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이란은 최근 터어키와 1백만B/D규모의 파이프라인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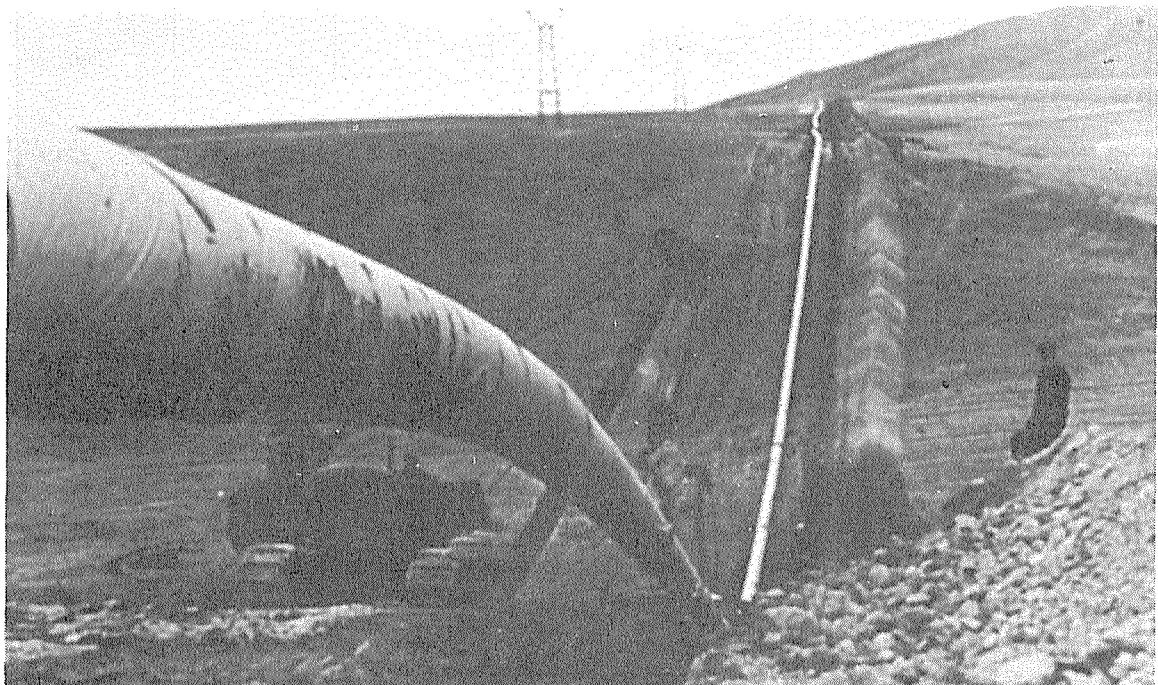
## 中東산유국의 파이프라인 건설계획

(단위 : 백만 B/D)

	기 존 능 력	신 설 계 획	비 고
사 우 디 아 라 비 아 Yanbu-Abqiq	3.15 3.15	4.15 3.15	• 90년 완공예정
Yanbu-Basra	0.5	1.15	• 이라크용임
Yanbu-Kuwait	-	1.0	
이 라 크 Basra-Ceyhan Basra-Yanbu	2.2 1.6 0.6	2.75 1.6 1.15	• 89년 완공예정 • 터어키 경유 • 사우디 파이프라인에 연결
이 란 Khuzistan-Black sea Ahwaz-Dortyol	0.7 0.7 -	2.0 1.0 1.0	• 소련 경유 • 터어키 경유, 90~91년 완공추진

건설계획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 계획은 이란 남서부 Ahwaz 유전으로부터 지중해 연안 동부 Dortyol의 터어키 터미널에 이르는 원유수송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 계획은 3~4년의 건설기간과 총40억달러의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南예멘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Shawba유전에서 아덴灣의 Bir Ali터미널에 이르는 총연장 2백3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다. 소련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될 Shawba유전은 확인배장량 37억5천만배럴로 추정되고 있으며, 생산될 유종은 API 36~43의 경질유로 품질



中東 산유국들은 호르무즈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파이프라인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 자유세계 송유관 건설계획 (1988년)

(단위 : 마일)

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파이프라인의 초기 수송능력은 10만B/D로 예상되며, 앞으로 50만B/D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파이프라인 건설기간은 1년6개월, 투자규모는 4억7천5백만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자유세계의 파이프라인 건설은 86년의 油價폭락에 의한 개발 및 탐사활동의 부진으로 전반적으로

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전문지 Oil & Gas Journal의 전망에 따르면, 88년  
자유세계의 파이프라인(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 건설  
계획은 총 9천3백마일로 전년의 1만6천마일계획(실질적으  
로 1만마일 부설)에 비해 41.6%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투자규모도 87년의 3백27억달러에서 66억6천달러로 크  
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